

유(有)로부터의 창조

글 / 김 종 성(에너지관리공단 홍보부장)

영국 출신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James Love Lock)은 지구가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하는 가이아(대지의 여신) 이론으로 이 우주가 일정한 원리와 법칙에 따라 질서있게 움직이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의 질서는 자연의 법칙으로 대변되며 이를 지탱해 주는 생태계의 먹이 사슬, 계절의 순환 등 이 모든 것들이 일정한 흐름을 띠고 있다.

인간의 삶과 재생산은 우주의 질서 속에서만이 가능한 것이며, 이를 거스른다면 결국 자연으로부터 배척받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프로메테우스에 의해 불을 얻게된 인간은 항상 더 다양한 힘의 원천을 찾게 되고 이로부터 인간의 발전과 창조는 가능해질 수 있었다. 그렇지만 무절제한 개발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연의 흐름에 역행해서 물질 문명의 발달과 편의를 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결국 바로 인간의 재앙이란 종말로 귀결될 것이다.

이러한 징후들은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태계의 파괴, 수질 오염,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자연을 무시하고 배반한 결과들이 아닌가. 이러한 것은 인간들이 공동체 의식을 저버리고 이기주의에 집착하면서 자연의 질서를 도외시하고 무관심했기 때문에 말미암은 결과들이다.

물질 성장의 시기에서는 우리가 자연에게서 많

은 혜택을 보았지만, 지금처럼 경제성장·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깨끗한 자연 환경을 추구하는 시기에서는 자연을 보호하고 그 흐름과 함께하는 자연 친화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간의 몸을 소우주로 보는 동양 사상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자연과 더불어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은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의 존재 인식에 기초하고 있지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환경 도덕시대에서의 환경과 공존하는 삶의 질 추구 문제는 이제 어느 한 개인만의 관심사가 아닐 것이다.

어느 조사기관에서 국민들의 관심사항을 조사한 결과 개인적인 문제로는 '자신의 건강' 관리가 1순위로 나타나 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 누구나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하는 것이 공통된 삶의 목표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 또한 대자연의 법칙 안에서만이 가능할 뿐이다.

환절기에 노인들이 일교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병세가 악화되어 운명하는 것도 변화하는 기온에 신체기능이 적응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 한다.

때문에 겨울에는 겨울답게 어느 정도 춥게 지내고 여름에는 어느 정도 덥게 지내는 것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닌가 한다.

삼성의료원의 이원로 박사는 여름철 인체에 알

에어컨이 없다고 하여
 섭섭해 하거나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지혜롭게 여름나기를 한다면
 에어컨을 설치해 놓고
 올바른 사용법을 몰라 냉방병에 걸려 건강을 해치고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깐 말이다.

맞는 건강온도는 26~29°C로서 이 온도에서 심장 질환이나 뇌경색 발병률이 가장 낮다고 말한다. 여름철에 덥다고 하여 실내온도를 지나치게 낮춰 놓고 생활하게 되면 피부수축으로 심장부담을 주게 된다는 논리이다.

올해는 일찍이 날씨가 더워져 이른 여름을 맞게 되고 보니 벌써 에어컨 구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여름철을 시원하게 보내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그러나 에어컨이 없는 가정에서는 자연바람이나 부채, 선풍기 바람으로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

에어컨이 없다고 하여 섭섭해 하거나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지혜롭게 여름나기를 한다면 에어컨을 설치해 놓고 올바른 사용법을 몰라 냉방병에 걸려 건강을 해치고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깐 말이다.

에어컨을 설치한 가정에서는 올바른 사용 방법을 이해하고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실내에 온·습도계를 설치하고 온도는 26~28°C를, 습도는 50~60% 유지해야 하며, 필터를 1~2주에 1회 정도 깨끗이 씻어서 세균오염을 예방하고 공기순환을 원활히 해주어야 한다.

올 여름은 전력수급이 그 어느 해 보다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자연바람으로 건강을 지키고 절전에도 일조하는 지혜는 어떠한가.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우리에게 안락함을 가져다 주는 고도의 소비문화 형태속에서는 그

에 대한 대가를 치뤄야 하는 자연의 섭리가 내포되어 있다. 점차로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규제하는 환경 협약들이 속속 가시화되고 있는 요즘은 우리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뿐만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무역 장벽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에너지의 무절제한 사용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항상 창조란 새로운 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만이 가능한 것이라 생각해왔다. 그렇지만 우리의 소비형태가 자연을 위협하고 그 질서에 역행하는 현재에 있어서는 보다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에너지원의 생산, 자연의 혜택을 계속적으로 향유하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것을 잘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지혜도 '유(有)로부터의 창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